

“체중 10kg 늘려 친근한 주인공 연기”

‘조장풍’ 배우 김동욱

MBC TV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배우 김동욱(36)의 첫 원톱 주연 드라마였다. 그는 이 작품으로 드라마 부진에 시달린 MBC에 월화극 시청률 1위 자리를 안겨줬고, 그 자신으로서 영화 ‘신과함께’ 이후 찾아온 전성기를 또 한 번 이어가는 데 성공했다.

최근 강남구 삼성동에서 만난 그는 드라마 원톱 주인공 자리를 맡은 데 대해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고, 같이 간 배우와 스태프에게 드라마 끝난 지금까지도 고마움이 크다”고 말했다. “아직 모든 역할 캐스팅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감독님, 작가님과 만장일치로 동의했어. 앞으로 어떤 역할에 누굴 캐스팅할 때 배우의 인지도나 스타성이 아니라 누가 그 인물을 잘 연기할 수 있을지 하나만 보고 하자고요. 저도 사실 그렇게 ‘핫한’ 배우는 아니잖아요. 절 타이틀롤로 선택했다는 건 시작부터 그런 방향성을 갖고 가셨던 것 아닐까요.”

그는 “그래서 함께 캐스팅된 배우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촬영했던 것 같고, 그 덕분에 배우들과의 앙상블을 보여드리며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함께 일한 배우들과 스태프에게 공을 돌렸다. 김동욱은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에 출연하게 된 건 “제목에 끌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근로감독관이라는 직업은 생소했다”고 밝혔다.

“배우들이 접하기 쉬운 직업군은 아니잖아요. 저도 이번엔 그런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실제로 직접 찾아보고 싶기도 했는데 너무 바쁘시고 쫓아다니는 것도 좀 그래서...(웃음). 30~40대 공무원 사진을 찾아보기도 했어요.” 이번 작품으로 체중을 약 10kg이나 늘린 것에 대해선 “그분들이 그런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조진갑 캐릭터와 인간 김동욱 사이 괴리감을 줄이고자 선택한 방법들 가운데 하나”라고 부연했다.

답답한 현실 통쾌한 해결

판타지 같은 내용이 신선

특별근로감독관 생소

공무원 직업도 힘든 것 같아

“촬영 들어가기 전 2~3주 만에 10kg 정도를 찌웠어요. 3~4시간마다 가리지 않고 다 먹었죠. 처음 먹을 땐 행복했어요. 그런데 한 끼에 부조건 공깃밥 세 공기씩 먹고 소화되기 전에 또 밥 먹어야 하면,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나중에 움직이는 것도 둔해지더라고요.”

드라마에 대한 애정도 숨기지 않았다.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 마음에 들었던 점으로 현실과 판타지의 균형을 꼽았다.

“제가 시청자라면 마냥 현실의 답답함과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데서 그치는 걸 보고 싶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드라마의 조금 다른 매력이라고 하면, 답답함을 해소해줄 수 있는 판타지 같은 것들이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이럴 수가 있어?’ 하는 의문이 들지만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다들 한 번쯤은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정치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노동 이슈를 풀어가는 드라마를 택한 데 대한 부담은 없었다고 한다. 김동욱은 “그저 드라마 주제 속에 놓인 조진갑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하면 사랑받게 하고 친근한 캐릭터로 표현할까를 고민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천만 영화 ‘신과함께’에서 관객들 눈물을 쏟게 해 숨은 주인공이라는 찬사를 들은 그는 ‘요즘 계속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는 말에 “물이 어디까지 들어올지 모르겠다. 계속 들어올 수 있게 그릇을 계속 넓혀야겠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했다.

“제2의 전성기요? 제3의 전성기는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전성기였으면 좋겠네요(웃음).” /연합뉴스



배우 김수로, ‘영국 축구 구단주’ 도전

KBS 2TV ‘으라차차 만수로’ 21일 방송 ... 박문성 등 참여

배우 김수로가 새로운 꿈을 향해 영국 축구 구단주에 도전한다.

김수로는 지난해 10월 영국 축구 13부 리그 ‘첼시 로버스’를 인수, 영국축구협회에 정식 구단주로 등록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KBS 2TV는 3일 배우 김수로가 영국 축구 리그팀 구단주로서 다양한 세대들의 열정과 마주하는 스포츠 예능 ‘으라차차 만수로’를 오는 21일 방송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밤 10시 첫 방송하는 프로그램은 김수로가 12부 리그 진출을 목표로 구단을 이끌어가는 내용을 담는다.

방송에는 ‘구단주’ 김수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의 스타들이 출몰한다. 과거 복싱 선수로 활약하며 연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배우 이시영과 K-POP의 주역인 엑소 멤버 카이가 새로운 꿈을 향해 영국에 동행한다.

여기에 한국어능력시험 5급에 빛나는 인도인 렉키가 구단 멤버로 합류해 통역과 요리 등을 책임지고, 스포츠해설가이자



EPL 전문가인 박문성이 축구 전문가로서의 남다른 역량을 발휘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 뉴이스트(NU'EST)의 멤버 백호도 원정에 함께하며 활력을 더한다.

이들은 축구 뿐 아니라 영국과 음악의 성지이기도 한 런던 첼시지역의 주택에 살아보며 현지의 삶과 문화를 느껴보고, 이 시대 꿈을 잇는 청춘에게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1인 방송 채널당 구독자 수 1위 ‘애니메이션’

2위 키즈상황극·3위 댄스

1인 방송 채널당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애니메이션인 것으로 나타났다.

CJ ENM 1인 창작자 지원사업 ‘다이하터’ (DIA TV)는 2일 파트너 창작자 1400개팀의 채널을 분석한 결과, 4월 현재 채널당 평균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색감과 그래픽이 강조된 애니메이션 (119만9649명)이었다고 밝혔다.

평균 102만230명이 구독한 키즈상황극이 2위에 올랐고, 댄스 47만6764명, 베이킹 41만2766명, 먹방 38만3218명 등 순이었다.

창작자 채널이 가장 많은 분야는 게임플

레이(235개팀·비중 16.8%)였다. 이는 게임분야 마니아층이 두텁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일상생활을 담아 다양한 소재를 녹일 수 있어 콘텐츠 응용 가능성이 높은 브이로그(Vlog)가 10.5%(141개팀)로 뒤를 따랐다. 브이로그는 ‘비디오’(Video)와 ‘블로그’(Blog)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콘텐츠를 말한다.

올해 초 다이하터 파트너 크리에이터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총 구독자는 7500만명을 돌파했다. 유튜브 구독자는 2억3000만명에 이른다. 이들 3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합치면 3억명을 웃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검법남녀 시즌2(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퍼퓸(재)		00 우리끼리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12 MBC 뉴스 25 다큐 나는...산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토크 보형설계(재)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우리말 겨우기(재)		25 우리끼리 식사교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팔도밥상 스페셜 55 UHD 솜타(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MBC스포츠 2019-20 PBA 프로당구 투어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30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쏘자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퍼퓸(재)	55 검법남녀 시즌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오솔밭 김제동	00 퍼퓸	0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00 초면에 사랑합니다
11	35 UHD 솜타 40 특집 시청자 음악회 오페라 갈라랜드	10 회사 가기 싫어 2019	05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00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명탐정 피트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페퍼 피그(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7:45 마사와 곰(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미래교육 플러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1~5
07:00 로보카 폴리	13:00 다큐 오늘	19:00 제로니모 스티븐의 모험
07:15 꼬마버스 타요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9:30 생방송 판다다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40 사건 브리핑-안전상황실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45 페퍼 피그	14:30 꼬마버스 타요(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땡땡땡 유치원1~2	15:00 출동! 파자마 삼총사	<중국음식기행 2부 소금 우물에 빠진 돼지, 휘투이>
08:30 몬가트	15:30 뽀롱뽀롱 뽀로로(재)	21:30 한국기행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45 출동! 슈퍼웍스(재)	<여수의 사랑 2부 초도는 내 사랑>
09:00 마사와 곰	16:0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50 EBS 다크프라이
09:30 원더볼즈	16:15 세미와 매직큐브	22:45 건축탐구 - 집
09:40 극한직업 스페셜	16:30 땡땡땡 유치원1~2	23:55 미래교육 플러스
10:30 한국기행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子 36년생 상대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도 있다. 48년생 사소한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60년생 희망을 가져도 좋은 시기이니라. 72년생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84년생 소리 소문도 없이 나타날 것이니 다행히 준비를 다하라. 행운의 숫자 : 16, 90</p>	<p>午 42년생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54년생 천신만고 끝에 목적을 달성하고 기뻐하라. 66년생 행간의 의미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78년생 시선 집착을 받을 수도 있다. 90년생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생산적인 모양새를 도모하는데 일조하라. 행운의 숫자 : 57, 40</p>
<p>丑 37년생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49년생 막혀왔던 물꼬가 트이리라. 61년생 무가치 허거나 비효율적이라면 빨리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73년생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85년생 긴급한 비상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기운이 감지된다. 행운의 숫자 : 35, 42</p>	<p>未 43년생 실행 하더라도 정밀하지 않으면 무가치하다. 55년생 조금만 더 밀어붙인다면 정점에 이른다. 67년생 다양함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이 절실하다. 79년생 앞으로 복잡해질 것이니 체계를 잡자. 91년생 다수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하라. 행운의 숫자 : 95, 56</p>
<p>寅 38년생 절차는 제대로 밟아 들어 편리할 것이다. 50년생 대로를 걷는 것이 편하고 빠른 길이다. 62년생 뒤쳐진다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74년생 치밀한 계획 하에 초치하는 것이 옳다. 86년생 큰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13, 12</p>	<p>申 44년생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성곡이나. 56년생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라. 68년생 탐을 얻을 것이니 형태를 유지해도 된다. 80년생 가급적 빨리 청산 할수록 이익이다. 92년생 관리는 평상시에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행운의 숫자 : 12, 71</p>
<p>卯 39년생 수용한다면 길사로 연결 되리라. 51년생 유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진보해야 한다. 63년생 바로 잡아야 후환을 예방할 수 있다. 75년생 소신을 바탕으로 한 주관이 절실하다. 87년생 가능성은 반반이니 마음을 비우고 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행운의 숫자 : 15, 36</p>	<p>酉 45년생 유혹을 뿌리치고 매 한 가지로 나아가자. 57년생 길잡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득세하게 될 것이다. 69년생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라. 81년생 노심초사하며 우려해 왔던 사건이 실제로 터지겠다. 93년생 불씨가 율되고 있다. 행운의 숫자 : 83, 95</p>
<p>辰 40년생 견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52년생 찾을 길이 없어서 막막하겠다. 64년생 결가지지 무시하고 주된 것에 몰입하라. 76년생 깊이 생각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수하지 않게 한다. 88년생 합심하여 야망을 극복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9, 05</p>	<p>戌 34년생 항상 시킬 수 있는 호기가 마련된다. 46년생 능부 경작하는 심정으로 처리해나가는 것이 옳다. 58년생 원래 상태로 회귀할도 괜찮은 국량이 될 것이다. 70년생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면 우스운 꼴이 되리라. 82년생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9, 61</p>
<p>巳 41년생 소강상태를 보이게 된다. 53년생 끝부분에 중요한 핵심적 사실이 깃들여 있다. 65년생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77년생 힘들더라도 과정에 충실하다보면 금전운에 대박 나게 되어 있다. 89년생 지리멸렬함을 정산하고 파격적인 진보를 보이겠다. 행운의 숫자 : 86, 19</p>	<p>亥 35년생 하찮다고 여겨왔던 것 속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47년생 극복하나 못 해나간 과거가 될 것이다. 59년생 안정세를 취하면서 견고해지겠다. 71년생 땅이 꺼지지 한술 쉼 일이 생긴다. 83년생 타인에게 비치는 겉모습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51, 30</p>